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월요일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제1독서

〈살아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3,9-15.20

사람이 나무 열매를 먹은 뒤, 주 하느님께서 그를 ⁹ 부르시며,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¹⁰ 그가 대답하였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¹¹ 그분께서 “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알려 주더냐?

내가 너에게 따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따 먹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¹² 사람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¹³ 주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고 물으시자, 여자가 대답하였다.

“뱀이 저를 꺾어서 제가 따 먹었습니다.”

¹⁴ 주 하느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짐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에서 저주를 받아

내가 사는 동안 줄곧 배로 기어 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

¹⁵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²⁰ 사람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다.

그가 살아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는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기도에 전념하였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 12-14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12 사도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산은 안식일에도 걸어들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었다.

13 성안에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아, 필립보와 토마스,
바르톨로메오와 마태오,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혈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14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화답송

시편 87(86), 1-2, 3과 5, 6-7(◎ 3)

- ◎ 하느님의 도성아, 너를 두고 영광을 이야기하는구나.
- 거룩한 산 위에 세운 그 터전,
주님이 야곱의 어느 거처보다
시온의 성문들을 사랑하시네. ◎
- 하느님의 도성아
너를 두고 영광을 이야기하는구나.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여기서 태어났으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 몸소 이를 굳게 세우셨다.” ◎
- 주님이 백성들을 적어 가며 헤아리신다.
“이자는 거기에서 태어났다.”
노래하는 이도 춤추는 이도 말하는구나.
“나의 샘은 모두 네 안에 있네.”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을 낳으신 동정녀, 복되신 교회의 어머니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길러 주시네.

◎ 알렐루야.

복 음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 요한이 전한 기록한 복음입니다.

19, 25-34

그때에 ²⁵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²⁶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²⁷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²⁸ 그 뒤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²⁹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³⁰ 예수님께서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³¹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³²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³³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³⁴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